

시세로 승부하지 않는다

현장탐방 > 포천



이인기 사무소장



◇ 포천지역에 약초재배가 활성화 된 것은 6~7년전부터다.

안을 꼭 내친. 밭 그대로 길을 끼고 있
다 해서 붙여진 지명
포천.
포천읍에서 1시간
남짓 달렸을까. 개암
나무, 옹단나무, 하늘
거린 불로해 나무의
여린 잎사귀 사이로
빼꼼히 한 잎의 열매
고, 나뭇가지들이 차
얇은 빛을 퍼뜨리는
파란산 비탈면에 출
렁이며 이른 곳만 판
인면 초가리, 포천군
이인기 소장의 대단지

약초재배 농장이다.
비교적 구릉의 완만
한 야산을 끼고 펼쳐
진 약 6만여평의 농
장에는 황기를 비롯
당귀, 지황, 하수오
등 갖가지 약초들이
숨을 이루고, 바쁘게
호미질을 하는 아주머
니들이 마당의 뒤쪽에
쏟아진 햇살에 반짝
들 사이로 색색이 아
름다.
나무그늘 아래서 영
국산 사슴까라는 세타
종 2마리가 꼬리를

흔들며 댕기다.
원래 다농과 원예업
에 종사하던 이 소장
이 약초재배에 손을
대기 시작한 것은 지
난 62년부터.
『처음에는 작약하고
복단꽃이 보기 좋아
서 심었는데, 그것이
나중에 돈이 되었다라
구요』
약초재배에 어느정
도 승산이 있을지 내
다본 이 소장은 지난
68년부터 평을 임대해
황기, 당귀 등 다양한
품종들을 재배하기 시
작하면서 본격적으로
약초재배에 뛰어들었
다.

30여년의 세월을 약
초재배에 몸 담다 오
면서 그동안 실패한
점도 부지기수. 정성
들여 수확한 약초를
종자값에도 못미치는
현황에 팔아 버릴 때
는 손 소주라도 보게
야 할 만큼 가슴 아팠
지만, 파란 거미가 없
는 법. 뿌린 만큼
거두게 되어 있는 것
이 또한 자연의 섭리
이듯이 약초재배에 대
한 오랜 투지와 타고
난 그의 부지런함이

우들의 이 소장을 만
들었는지 모른다.
현재 이 소장의 개
인농장은 인삼밭을 포
합 약 8만5천평의
밭이며, 이중 6만여
평이 약초재배농장이
다. 초가리, 심림리,
일동 등 13곳의 약초
농장은 황기 5만여
평, 당귀 5천평, 천
궁 8백평, 지황 2천
평, 하수오 4백평,
강활 5백평이 재배되
고 있다.

새벽 4시면 어김없
이 눈을 뜨고, 4시40
분이면 벌써 그의 무
적의 포판은 약초밭
으로 향한다. 그렇게
아침 5시에 밭을 둘러
보고 나서야 8시30분
에서 9시 사이에 아침
시사를 한다는 이인기
소장.
『농사짓는 다는 게
새벽에 문 열어 밤늦
은 시간까지 영영하는
구멍가게와 다를 게 없
어요』 그렇게 부지런
을 떨지 않으면 도농
사를 지을 수 없다고
도 말한다.

『농사꾼은 인체의
복강제 입고 어찌고
할 시간도 없어요. 환

갑창채가 더라도 일
하다 그냥 그대로가
서 어디서 잡바 하나
깨치고 가서 인차차배
하고 나오는 거지 언
제 꾸미고 할 시간이
있나요』
이 소장의 이런 소
탈함과 부지런함이

약초, 품종선택이 무엇보다 중요 실패 원인분석 통해 노하우 축적

시 포천지역 약초재배
를 활성화시킨 큰 원
동인이 될 수 있다.
약초재배, 불로해
나 다름없는 포천지역
에 약초재배가 활성화
되기 시작한 것은 불
과 6~7년 전부터.
영분, 영분, 송을 신

복면 등 4개면이 이
소장의 관할권으로 현
재 포천지역의 약초재
배 농가 수는 2백50여
가구이며, 2, 3백평
단위의 소규모로 약초
농가를 하는 사람까지
를 합하면 재배 농가 수
는 이보다 훨씬 많은
수이다.
황기, 당귀, 작약,
지황, 강활, 천궁,
하수오, 강활, 천궁



◇ 포천군 관인면 초가리에 있는 이인기소장의 6만여평 약초재배 농장.

지황 등의 약초가 골
고루 재배되고 있으
며, 그 중 황기는 생
산량의 18~20%를 소
화해 내고 있는 포천
의 대표품종으로 전부
에서 그 품종을 인정
받고 있다.
수확한 약초는 모아
공급해야 하는데, 생산
량의 80%가 재천급
산, 약초시장은 나
머지는 영분시장과 한
의원 한약방 등에서
판매된다.

이 소장은 『그러나』
올해는 품종선택이 황
귀가 예년에 비해 물
건이 떨어질 것 같다』
고 안타까워 한다.
이 소장의 개인농장
만 해도 황기밭 5만
평에서의 수확이, 예
상했던 5만평에는 터
없이 못미칠 것 같고,
이번 가을에도 가장
피해가 컸던 당귀의

경우 파종한 5천평
중 3천평은 고사한
자리에 부우를 심은
상태로 수확이 1천여
근에 불과할 것으로
내다보고 있다. 이와
에도 강활은 예년에
모든 품종이 예년에
비해 약 40%가량의
수확간수가 예상된다
고 한다.

『여기 것은 황기씨
가 누워서 마당 생긴
데 비해, 영월 정선
것은 2~3년산으로
타 지역 종자에 비해
떨어떨해서 좋지요』
이 소장의 설명이다.
이 소장은 사에는 농

기가 따로 없다.
불의 파종이 끝난
후 여름 겨울 제초
거를 부는 일에서부터
작업까지 일손 바쁜 것
은 물론 겨울에는 가
을에 수확한 약초가
공정료를 하느라 매일
차 2대 정도의 인원을
출동시킨다. 사와야
한다.
지름은 씨뿌리기 전
에 주근 기비를 제외
하고 정선정도야 따라
대개 1년에 3회정도

가 적당하며 6만평
농장에 비하면 2천5백
평, 비료는 만도 1천
만원 정도이다.
약초재배의 성공하
기 위해서는 품종,
발, 관리, 습관, 맛
아야 한다고 강조하는
이 소장. 그가 지난
6월 재단법인 영농회
를 발족했다.
7명의 박기, 현재
11명이 주주로 가입된
있으며 올해 1백명
회원으로 확보할 계획
이며, 규격화에 대비
생약가공공장, 실험실
서 두르고 있는 데 현재
2억 예산으로 포천읍
소재의 5만평 규모의
부지를 확보해 농
장이다.

『약초밭 처음 재배
하는 사람에게는 실의
유를 시켜 줘야 된들
리지만, 실의 유를
시세로 승부하지 않
는다』
그 해 약초농사가
실패하면 그 원인은
을 통해 다 배 농사
는 더도 덜도 하지
하지 절대 포기하지
않는다』 사장은, 그
들들을 위로 하며 부
어느 정도 문구를 퍼
올렸다.
『포천은 아름답다.
그를 믿고 믿는다』

포천지역 영농회
인 장영주씨는 『현재
특약작물에 대한 지원
금이 얼마간 있다고는
하지만, 혜택이 거의
없는 실정입니다. UR
대비 차원에서 전량
는 생약재농가에 대
한 지원용자 지원책을
강화해 줘야 한다』
고.
『영농회』에서는 오
동(전)은 약초농가
를 돕기 위해 많은
활약이 되고 있다. 『
작업이 부진하다』며
『정확히 하는 것』
이 재배기술이라 고
설명한다.
『약초밭 처음 재배
하는 사람에게는 실의
유를 시켜 줘야 된들
리지만, 실의 유를
시세로 승부하지 않
는다』
그 해 약초농사가
실패하면 그 원인은
을 통해 다 배 농사
는 더도 덜도 하지
하지 절대 포기하지
않는다』 사장은, 그
들들을 위로 하며 부
어느 정도 문구를 퍼
올렸다.
『포천은 아름답다.
그를 믿고 믿는다』

△文程照